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6월 23일(주일) 제1497호



사진은 지난해 강동온누리교회 동서울A공동체 아웃리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복음 들고 땅끝까지!

해외 136개 팀 2,334명, 국내 219개 팀 5,208명 참가 예정
해외 2000선교, 국내 공동체 총무에게 아웃리치 계획서 제출

2024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시작된다. 해외 136개 팀 2,334명, 국내 219개 팀 5,208명(6월 21일 기준)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간다.

해외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53개 팀 923명, 대학청년부 57개 팀 943명, 차세대 26개 팀 468명이 참가한다. 네팔, 일본, 튀르키예,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에서 선교지 교회 방문, 선교사 위로, 어린이 사역, 시설 보수 등을 할 예정이다.

국내 아웃리치에는 성인공동체 82개 팀 2,257명, 대학청년부 124개 팀 2,644명, 차세대

13개 팀 307명이 참가한다. 농어촌교회와 M센터, 기관, 군부대 등지를 찾아가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노방전도, 군부대 위문 등을 할 예정이다.

여름 아웃리치를 가는 공동체 및 사역팀, 대학청년부와 차세대에서는 반드시 아웃리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아웃리치팀은 2000선교 본부, 국내 아웃리치팀은 소속 공동체 또는 사역팀 총무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아웃리치를 위해서 교회에서 제시하는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024 여름 아웃리치의 은혜를 나눌 장(場)도

마련했다. 미디어본부에서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 '찍자, 아웃리치!'를 개최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이나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는 안 된다. 제작 영상을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4) 하면 된다. 1등 50만 원(1팀), 2등(30만 원, 3팀), 3등 10만 원(5팀) 상당의 배달앱 상품권을 준다. 위트상(5팀), 은혜상(5팀)에게는 카페 상품권을 준다. 입상한 영상은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onnuriacts29)과 페이스북(@OnnuriCommunityChurch), 유튜브 커

뮤니티 등에 게시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아웃리치 사진과 성도들의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진,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좋다. 사진과 간증을 보낸 성도들을 추천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준다.

아웃리치 문의

해외: 02-3215-3211(2000선교본부)

국내: 각 공동체 총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4 부채탈출119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2024 부채탈출119'를 개최한다. 부채탈출119는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을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 도와주는 부채상담사역이다.

재정 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이메일(james332023@gmail.com)로 제출하거나 구글 링크(QR참고)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계재정상담신청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문의: 010-7636-3755



/ 홍하영 기자

'714 기도대성회', '로잔청년콘퍼런스' 개최

7월 14일 13개 지역 거점 교회, 7월 13일 신길교회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714 기도대성회'와 '로잔청년콘퍼런스'가 열린다. 714 기도대성회는 오는 7월 14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전국 13개 지역 거점 교회에서 막 오른다.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 성민교회(이해영 목사), 신길교회(이기용 목사),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 용인제일교회(임병선 목사),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 늘사랑침례교회(송호철 목사), 남군산교회(이신사 목사), 광주광천교회(이양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제주성안교회(류정길 목사)에서 열린다.

'로잔청년콘퍼런스'는 7월 13일(토) 오후 2시 신길교회에서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로잔청년콘퍼런스에서는 아이자야씩스티원(Isaiah61:1)이 찬양예배를 인도하고, 최읍 선교사와 문대원 목사가 강의와 설교를 한다. 선교박람회도 열린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 오른다.

문의: lausanne.kor@gmail.com

차세대 여름캠프 2주 앞으로!

7~8월 '하나님의 용사, 다윗' 주제로

2024 차세대 여름캠프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차세대 여름캠프는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주제로 7월과 8월 부서별로 진행한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7월 6일(토)부터 7월 21일(일)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7월 6일(토)부터 8월 11일(일)까지 국내 캠퍼스 본당 및 외부에서 한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담아요', '말씀을 따라요'를 주제로 QT와 성경 퀴즈, 적용 놀이와 체험활동 등이 이어진다. 파워웨이브(중고등부)는 7월 21일(일)부터 8월 12일(월)까지 외부에서 여름캠프를 한다. '독대(獨對)'를 주제로 찬양집회, 강의, 기도회 등이 열린다.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만을 다룬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예루살렘교회에서 일어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 주는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이유는 로마 제국의 지지를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피지배 민족들 가운데 어떠한 분란이나 소동 없이 평안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수의 반란이나 소동, 다수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 나타나면 가차 없이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다수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생각에 의해서 야고보가 처형 댔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었지만, 어떤 공정한 절차와 이유 없이 표적이 돼 살해된 것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사도의 죽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기타 사도들의 순교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순교는 야고보가 유일합니다.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제자입니다. 그의 형제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요청해서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교자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선호했지만, 유대인들은 칼로 죽이는 방법을 선호했기 때문에 다수의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우쭐한 헤롯이 예전에 산헤드린공회와 부딪힌 적이 있었던 베드로를 다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감옥에 갇히는 베드로

무교절은 유월절이 끝난 다음날 시작되는 일주일입니다. 유월절은 하루 저녁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이 기간을 선택한 이유는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더 큰 화제거리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립바가 베드로를 처형하면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하나님의 버리심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 갑작스런 사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나 버리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를 가장 아름다운 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르심은 도리어 하나님이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부르심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의 죽음이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충격과 두려움을 가져다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현실이자 실제, 역사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서 전도하다 하룻밤 갇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에서 산헤드린공회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 번째 갇힌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서 두 번 감옥에 갇힐 때는 산헤드린공회가 주도했고, 공회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변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산헤드린공회가 베드로를 잡아 가둔 것은 위협하고, 협박하는 목적이었지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감옥에 갇힌 것은 야고보를 갑자기 죽인 것처럼, 베드로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립바의 정치적인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죄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잤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도 감옥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 또한 평안 가운데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담

대함과 평안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찢어 깨웠습니다. 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찢는 것이 하나님의 노크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로의 노크라고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이들 가운데, 박해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고후 1:3-5).

넘치는 환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성도들을 천사를 통해 깨우시며 하나님의 위로의 노크를 주고 계십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사슬을 풀고 감옥 밖으로 나오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나와 거리를 지나고, 천사가 떠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감옥 밖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때로 ‘과연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환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자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노크’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5절).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12절).

그들이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희생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노크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깨우시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노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다.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이 임하기까지 열흘 동안 열두 제자들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가의 집이기도 하고, 마리아의 집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큰 집이었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섬김입니까?

‘마리아의 집’을 떠올리면서 생각난 분이 지금은 천국에 계신故 이상자 권사님입니다. 이상자 권사님은 한남동의 집을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장소로 제공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거나 돌아왔을 때 언제나 식사 대접을 하고, 기도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혼자 계시기 때문에 큰 집이 필요 없고, 관리도 힘들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는 게 맞는데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때문에 이사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섬기셨습니다. 마리아의 집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 집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속삭이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을 때 여종이 바깥 현관까지 나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과 뜰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하는 기도를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노크’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깨워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란 위기를 통해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위기 때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

로의 투옥이라는 위기가 없었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늦은 밤 간절히 기도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기와 고난은 기도로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베드로의 노크,
하나님의 구원 알리는 ‘전도의 노크’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마리아의 집을 노크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떨리고,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 얼마나 설렘겠습니까?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차리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돌아오셨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여종에게 “너 미쳤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너 미쳤구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 병원심방을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열이 떨어지지 않고, 약을 먹어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심방을 갔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

다.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고백을 기도한 제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모인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간절히 진실로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여종에게 “미쳤다”고 하고 문을 안 열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노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전도의 노크라고 해석됩니다. 베드로는 세 번 갇혔지만, 세 번 모두 감옥에서 나왔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담대한 순교로 승리를 전하고, 어떤 이들은 계속 살아남아 승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성도들을 조용히 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조용히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하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주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에게 전하라는 것은 앞서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사건 이후 예루살렘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기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예루살렘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겨 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부각됩니다. 베드로가 인수인계를 한 것입니다. 리더십을 이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이란 헤롯 아그립바를 피해 죽지 않을 곳에 숨어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은 또 다른 곳에 가

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이제 야고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1-2년 뒤 안디옥에 나타났다가 첫 번째 공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교회의 리더십이 교체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가 떠났지만, 예루살렘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 공동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어느 한 두 사람의 지도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하겠지만, 예루살렘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비롯한 또 다른 리더십에 의해 이끌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에 의존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고보가 그렇게 순교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는 미워하시고, 베드로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적인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노크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깨우시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노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로잔운동 기획시리즈 - 1. 로잔운동의 역사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운동의 역사

김성욱 교수
(충신대학교, Ph.D)

I. 서론

21세기는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적 역할과 사명을 확실히 요구하는 시기이다.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40여 년 만에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과 함께 세계선교에 활발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제3차 로잔대회 의장인 덕 버드셀(Douglas Birdsall)은 지난 300년 동안 곧 1700년부터 2000년까지 300년 동안 가장 감동스러운 교회로 진젠돌프(Zinzendorf)가 중심이 된 모라비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명하였는데, 이 두 교회의 특징은 규모에 비해 선교 중심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평한 바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세계선교를 섬기는 사역을 보다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교회의 선교신학과 선교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오늘의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역과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이루어진 세계선교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로잔 세계복음화운동(Lausanne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일어난 다양한 역사적인 선교대회를 살피고, 로잔복음화운동의 역사적인 의의와 그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현대 교회 선교동향은 먼저 다양한 선교대회와 선교신학의 활동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고 본다. 20세기 한 세기는 다음 중요한 다섯 가지 선교대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1910년의 에딘버러 선교대회, 그리고 1921년 국제 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창설과 1948년 설립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 그리고 1974년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1989년 제2차 로잔대회, 마지막으로 2010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제3차 로잔대회라고 볼 수 있다. 아더 존스톤(Arthur Johnston)은 20세기 선교연합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복음화의 약화된 열정이 로잔운동을 통해 다시 세계 교회로 하여금 초대교회와 같은 선교적 열정으로 되돌린 행사로 평가하였다.¹⁾ 그러므로 로잔운동은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전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모인 만국교회의 세계선교

운동이다.²⁾ 조종남 박사는 로잔운동이야말로 “성경적 선교를 믿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계획하며 일할 수 있는 우산의 역할을 하며 로잔은 세계교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로잔운동을 잘 소개하였다.³⁾ 그리고 방선기 목사도 “한국 교회에서 로잔정신이 꽃피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적 운동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힌다.⁴⁾

특별히 지난 2010년은 그 어느 해보다 현대 한국 교회 역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많은 선교대회가 준비되었고 진행되었다. 지난 100년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선교대회를 기념하는 국제선교대회가 동경⁵⁾과 에딘버러⁶⁾, 그리고 서울⁷⁾에서 개최되었으며, 국제로잔운동협회는 이것을 기념하여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00년 전에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선교 사역이 수행되었다면, 21세기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선교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20세기는 어느 때보다 현대교회가 선교에 집중한 세기였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대 선교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로잔운동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I. 로잔 세계복음화운동의 배경

로잔 세계복음화운동(Lausanne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은 현대 세계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로잔운동이 오늘의 성경적인 선교적 확장이 가능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나타난 선교신학의 좌경화를 통한 선교의 감소가 진행될 때에, 로잔 대회는 다시 성경 중심적인 선교신학을 강조하여 지속적이고 정통적인 선교운동이 가능하게 만든 역사적 중요한 선교대회였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로잔 세계복음화운동이 나타나기까지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사실 현대 선교사역에서 지난 19세기의 선교적인 열기와 부흥은 20세기의 놀라운 선교 시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10년 영국에서 열렸던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는 주제 하에 새로운 세기의 선교

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전세계교회가 함께 모여 선교를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결의를 통해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를 결성하는 결과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21년 미국 뉴욕주의 모호크 호수(Lake Mohonk)에 그 창립 총회를 가지며 선교를 위한 국제선교협의회가 전 세계적인 협력과 선교신학의 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국제선교협의회는 2차 예루살렘 선교대회(1928),⁸⁾ 3차 마드라스 대회(1938),⁹⁾ 4차 캐나다의 휘트비 대회(1947),¹⁰⁾ 그리고 5차 빌링겐 대회(1952),¹¹⁾ 그리고 6차 가나 대회(1958)¹²⁾로 이어지면서 열렸다. 그 후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선교분과와 합쳐져서 선교를 위한 세계 교회의 연합과 협력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한 전 세계 교회들의 협력과 연합은 커다란 가시적인 선교의 열매를 가져왔지만,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세계선교는 수많은 세속적인 신학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지난 20세기는 눈부신 선교의 발전을 가져온 시기이지만 아울러 선교를 위한 신학적인 투쟁이 치열한 시기였다. 특히 미 하버드대학 교수 윌리엄 혹킹(William Ernest Hocking)은 〈선교의 재고〉(Re-Thinking Missions)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선교의 목적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바, 말과 행위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다.”¹³⁾ 그리고 “비기독교적 종교체제를 공격하는 것이 기독교 선교사의 의무는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교 체제 안에 의(義)를 실현시키고 있는 세력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간주해야 한다.”¹⁴⁾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발상으로, “중국의 유교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인도의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일본의 신도는 신도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선교신학의 주장은 그 당시 복미교회의 선교후원금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1973년 태국 방콕에서 ‘오늘의 구원’이란 주제로 모인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세계선교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CWME)에서 선교에서 구원의 개념이 변질되어 신학적 혼돈을 가져왔으며, 마침내 방콕대회는 서구 선교사들의 모라토리움(Moratorium), 곧 해외선교를 위해 선교사

를 보낼 필요도 없으며, 현재의 선교사도 철수하라고 제창하기에 이르렀다.¹⁵⁾

그리고 WCC 제5차 나이로비 총회(Nairobi Assembly of WCC 1975)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의 해방 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고 ‘현대판 바로의 권력으로부터 피압박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Nairobi의 선교론으로 나타나고, 구원의 신학을 해방의 신학으로, 그리고 선교를 사회정의의 위한 투쟁으로 전락시켰다. 스티븐 니일(Stephen Neill)은 이러한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해방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만일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배신하는 것이다.”¹⁶⁾

이러한 WCC의 선교신학은 복음 전파와 사회활동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교회의 주요 관심이 세계복음화보다 사회활동에 치우치게 만들고, 교회의 주된 선교가 인권운동과 정치적 경제적 해방운동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현대의 에큐메니칼은 성경적 개념의 선교에서 벗어나 있다고 본다.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정치적 행동으로는 교회가 사회를 구원할 수 없다. 만일 복음전도가 정치화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The Church cannot redeem society by political action, when evangelism become politics; it is no longer the Gospel of Christ's Kingdom)라고 말했다.¹⁷⁾

이러한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자유주의 신학, 종교다원주의, 사회복음주의,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세속적인 사상들 때문에,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적인 선교를 위한 세계선교사역을 위하여 베를린 선교대회(1966), 제1차 로잔 세계선교대회(1974), 제2차 로잔 세계선교대회(1989)를 통하여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선교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을 가져온 그 배경은 바로 진보적인 선교신학의 자극으로 인해, 성경중심적인 개혁주의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세계선교를 위한 협력을 이어갔다. 그리고 2010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로잔 세계선교대회는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추진되었다.

각주

- 1) Arthur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Wheaton: Tyndale House, 1989), 24.
- 2) Mats Tunehag, Wayne, Josie Plummer, 『Business As Missions』, (해리 김외 1인 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0), 5.
- 3) 조종남, 『로잔의 역사와 신학』,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89), 10월호, 46.
- 4) 방선기, 『한국 교회와 로잔운동, 로잔정신』, 목회와 신학, 1989, 10월호, 105.
- 5) 동경대회의 주제와 장소 그리고 일시는 다음과 같다: 대회 타이틀은 From Edinburgh 1910 to Tokyo 2010 Global Mission Consultation & Celebration이며, 대회 주제는 ‘우리 세대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자’(Making Disciples of Every People in Our Generation)이었다. 전 선교단체 대표들과 일본 성도들이 참여한 선교축제로서, 시

- 간과 장소는 2010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나가노 선플라자(Nakano Sun Plaza, Tokyo)에서 개최되었다.
- 6) 에딘버러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는 안타깝게도 300여 명의 적은 수가 참여한 에큐메니컬 모임으로 과거 100년의 선교대회와는 달리 선교적 열정과 열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대회였다고 한다.
- 7) 서울대회는 그 주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Witness Jesus Christ Today!)이며, 대회 타이틀은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대회이며, 한국연합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100개의 주제논문 발표와 지역인전, 부산)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 8) 제2차 국제선교협의회는 세계 50개국 231명의 대표들이(한국 대표: 김활란 여사) 1928년 부활절 예루살렘의 감람산 위에서 개최하였으며, ‘기독교 메시지의 성격과 세속화(Secularism)에 대한 기독교 전략’이란 주제로 모였으며, John R. Mott는 여기서 타종교 안에서도 좋은 점들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제선교협의회가 사회복음(Social Gospel) 및 혼합주의(Syncretism)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비판받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전통적인 영혼 구원의 선교는 “넓은 복음전도”라고 비평하고 영혼 구원의 선교를 거 부한 점이었다.
- 9) 제3차 국제선교협의회는 인도의 마드라스(Madras, 현재 첸나이), 탐바람(Tambaram)에서 1938년 12월2) 세계 69개국으로부터 471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교회야말로 복음화를 수행하는 최상의 기구이며, 교회의 일치강조하였다. 문제점으로는 1930년대 등장한 칼 바르트의 위기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 복음은 타종교의 완성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까지 된 점이다.
- 10) 제4차 국제선교협의회는 1947년 7월 캐나다 온타리오, 휘트비(Whitby)에서 40개국 112명의 대표

- 들이 참석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계교회의 연합의식 재확인하는 대회였다. 그리고 선교국과 피선교국간의 구별을 지양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동역자의 자세를 역설하였다. 그리고 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표어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복음이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11) 제5차 국제선교협의회는 1952년 7월 5-17일까지 독일 빌링겐(Willingen)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은 181명으로, 이 가운데 과반수가 제3세계의 대표들이었다. 여기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 연합의 필요성 재확인 하고, 선교국과 피선교국간의 동역의 필요성 재강조하였다. 선교는 교회중심적인 관점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와 세속 세계안에 주권적으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활동(Missio Dei)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선교의 활동으로 보았다.
- 12) 제6차 국제선교협의회 총회는 아프리카 가나,

III. 복음주의 선교운동과 베를린 국제복음화대회

1.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Evangelical Churches and Mission)

1960년 후켄다이크(J. C. Hoekendijk)의 하나님 선교신학이 에큐메니칼의 전반적인 선교 신학으로 자리 잡자, 개인 영혼 구원을 전제한 복음화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은 전통적인 선교관이 인간화와 살롬을 강조하는 새로운 선교로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게 됨으로, 보수진영은 복음주의(Evangelism)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때부터 문제의식은 가졌으나, 실제로 1961년 국제선교협의회(IMC)와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통합되면서 에큐메니칼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직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대해 아서 존스톤(Arthur Johnston)은 “19세기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선교운동은 이 대회를 기점으로 종언을 고하게 되었으며, 경건주의 개혁자들의 영향 아래 전진했던 위대한 선교의 세기는 선교정치와 기관들의 출현으로 종말을 맞게 되었다”18)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1917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후 주류 교단의 자유주의적 성향과 초교파선교단체의 영향력이 상실되자 복음주의자들은 초교파해외선교협의회(IFMA)를 창설하였다. 일부 근본주의자들은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E)를 결성하였으며, 그 후 1945년 선교단체와 연합으로 복음주의해외선교협의회(EFMA)를 결성하였는데, 그것은 IFMA가 초교파선교단체만을 허입하였기 때문에 교파선교단체를 포함하는 연합체로서 EFMA가 결성되었던 것이다. 신설된 EFMA는 새로운 학생사역과 교파단체의 보호막이 되었다. 1945년부터 1974년까지 복음주의 선교는 인적, 조직적, 재정적으로 성장하였다. 1976년부터 이 두 단체는 3년마다 연합모임을 갖기로 결의하였다.19)

최형근은 복음주의 선교의 도약을 위한 중한 기폭제는 다음에 나타난 여러 단체의 출현으로 가능하였다고 한다. 20) 곧 풀러신학교의 창설(1947), 빌리 그래함의 전도협회(BGEA) 창립, Christianity Today 창간(1956). 빌리 그래함의 복음주의운동, 세계복음주의협회(WEF, 지금은 WEA) 설립(1952), 그리고 IFMA와 EFMA 연합으로 EMQ 창간(1964)한 일과 도날드 맥가브란이 풀러선교대학원 개원(1965)한 일들이 주요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기폭제로 열거되었다.

선교를 위한 전 세계 교회들의 협력과 연합은 큰 가시적인 선교의 열매를 가져왔지만,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세계선교는 수많은 세속적인 신학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었다.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 사회복

음주의,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세속적인 사상들로 인해 선교신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경적인 선교를 위한 세계선교사역을 위하여 휘튼(Wheaton)과 베를린(Berlin) 선교대회(1966),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Lausanne Congress on the World Evangelization I, 1974), 제2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1989), 그리고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2010)를 통하여 전통적이고 총체적 복음주의적 선교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을 가져온 그 배경은 바로 진보적인 선교신학의 자극으로 인해, 성경중심적인 개혁주의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세계선교를 위한 협력이었다. 21)

2. 베를린(Berlin) 세계복음화대회

1966년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복음화대회’(The World Congress of Evangelism)는 현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복음화대회였는데, 이것은 Billy Graham의 지도력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대회의 주제는 ‘한 인류, 한 복음, 한 임무’로 100여 개국 1,200명 이상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복음전도를 연구하게 되었다. 본 대회의 지도자들은 빌리 그래함과 <크리스찬리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의 편집자인 칼 F. 헨리(Carl F. Henry)가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22) 이 대회에는 다양한 그룹의 참가자들, 특히 제3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200여 명이 모인 모임이었다. 특히 에쿠아도르에서 참여한 아우카(Auca) 인디언들은 1956년 5명의 선교사들이 순교당한 지역에서 회심한 사랑과 평화의 사신들이었다. 본 대회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빌리 그래함은 영혼 구원을 반대하는 WCC의 에큐메니칼의 선교론에 반대하면서, 전통적인 성경적 선교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를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다.

“복음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사람들로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여 교회의 교제 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다”(To evangelize is so to present Christ Jesus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at men shall come to put their trust in God through him, to accept him as their Savior and serve him as their King in the fellowship of his Church).23)

또한 성경적인 선교의 동기가 모호해진 시대적 상황에서 분명한 성경적 선교동기의 정립이 필요해서, 베를린 복음화대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4)

베를린 복음화대회는 거의 3년간의 준비와 계획을 통해 열리게 되었다. 성경적인 복음화에 대한 바른 정립과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의 문제들, 민족주의나 인구문제와 경

제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한 협력 구조에 대해 논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대회의 주제인 ‘하나의 인류, 하나의 복음, 그리고 하나의 사명’(One Race, One Gospel, One Task)으로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IV. 제1차 로잔(Lausanne) 세계복음화운동(1974)

스위스의 로잔에서 1974년 7월 16일~25일 사이에 열린 ‘세계복음화대회’는 그 규모 면에서나 중요성에 있어서 의미가 매우 크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참가한 2,700여 명이 모여서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으라!’(Let the Earth Hear His Voice!)라는 주제로 성경적 복음선포를 주제로 대회를 이끌었다. 이는 WCC의 에큐메니칼의 급진적인 선교론에 대한 철저한 복음주의적 선교론을 정립하는 대회였다.

그들은 신학적 혼란의 시기에 복음전도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선포하고 이것을 표준으로 선교의 메시지와 방법들을 검토하여 성경의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서 당면한 중대한 문제들에 관련시키는 것을 주장했다. 불신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원으로 회복하는데는 성경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성경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한 인격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언제나 악한 세력들 안에서 변질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끊임없이 갱신할 수 있게 한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복음전도와 사회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사회활동은 복음전도의 한 협력자(a partner of evangelism)임을 주장하고 이 둘은 서로에게 속하는 존재로 규명했다.

“각각은 다른 쪽의 자신의 발로 자신의 권리 안에 선다. 다른 쪽에 대한 한 방편은 아니며 더욱이 다른 쪽의 한 표현도 아니다. 왜냐하면 각각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둘 모두 거짓 없는 사랑의 표현들이다.”25)

로잔 세계복음화선교대회(I)는 ‘전적으로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인’ 선교대회를 위한 계획으로 소집되었다.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은 이 대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의 복음주의적 입장에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주의적이거나 논쟁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26)

이 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복음주의에 헌신적이어야 하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서에 충실하고, 복음전도와 구원과

회심에 대한 성서적 견해를 고수해야 한다”고 밝힌다. 27)

그리고 로잔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에서 15개 조항의 로잔언약을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방향에 대하여 복음주의 선교를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1974년 제1차 로잔대회를 개최함으로 시작된 로잔운동은 성경의 권위와 함께 인간의 원죄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헌신을 강조하는 복음전파의 목적을 위해서 교파들의 폭넓은 연합을 시도하였던 빌리 그래함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 회의의 놀라운 결과는 150개국에서 모인 2,430명의 지지를 받은 로잔선언(Lausanne Covenant)이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www.lausanne.org서 찾을 수 있다.

에큐메니칼 진영이 1968년 옴살라대회에서 선교의 목표 자체를 ‘복음화’에서 ‘인간화’로 바꾸고, 1973년 방콕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세계선교위원회(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CWME)에서 선교의 핵심내용인 구원의 개념 자체를 ‘영혼 구원’에서 ‘오늘의 구원’(Salvation Today) 개념으로 바꾸자.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선교신학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1974년 로잔대회로 나타나게 되었다.28) 1974년 로잔 선교대회를 정점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점이 복음주의 쪽으로 이동하였다. 로잔운동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위원회가 창설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로잔운동은 2개의 주요 로잔모임과 50여 국가와 지역모임을 감독하였다.29)

그리고 로잔운동은 지난 시간 동안에 다양한 신학 주제들을 정하고 연구모임을 주관하였다: 곧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들은 ‘동질단 위원리’(Homogeneous Unit Principle)(1977), ‘복음과 문화’(Willowbank Consultation, 1978), ‘무슬림복음화’(1978), ‘단순한 생활양식’(Consultation on Simple Lifestyle, 1980),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Consult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1982), ‘기도’(1984), ‘신앙과 현대성’(1993), ‘상황화’(1997), ‘명목주의’(1998), ‘영적 전쟁’(2000) 등이다.

그리고 1980년 태국 파타야 로잔대회는 650명의 대표단이 17개 소협의회를 구성하여 세계복음화에 관한 신학적, 전략적 이슈를 연구하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복음화할 뿐만 아니라 미전도종족들, 곧 주변인, 소수민족, 종교인, 도시인에 대한 선교전략을 논의하였다.30) 특별히 1974년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에서 강조된 주요 내용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한다.

〈계속〉

아키모타(Achimota)에서 1957년 12월 28일에서 1958년 1월 8일까지 개최되었다. “기독교선교란 무엇인가?”라는 대표적인 질문 아래 선교지와 선교국 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결의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1948년에 창설된 WCC와 통합할 것을 결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학교육기금(Theological Education Fund)의 설립을 결의한 것이다. 이 기금은 미국의 록펠러(John D. Rockefeller) 재단을 중심으로 2백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의 신학교육을 촉진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참고: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10), 148.
13) William E. Hocking, Re-thinking Missions, A Layma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59.
14) Ibid, 59.
15) 조종남, 『로잔세계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0), 10.
16) Steven Neill, "The Nature of Salvation," The Churchman, Vol., 89, No., 3, 1975, 230.
17) Edmund P. Clowney, "A Critique of the 'Political Gospel'," Christianity Today, Vol. 11 (1967, April, 28th), 11.
18) Carl F. Henry and Stanley Mooneyham, eds., One Race, One Gospel, One Task, Vol. I,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67), 6.
19) Ralph Winter, "It is Possible? Global Cross-Cultural Mission Collaboration: 1910-2010," Mission Frontiers, Jan-Feb. 2009, 9.
20) 최형근, "로잔운동의 역사, 신학, 비전," 개혁주의선교신학, 2012년, 제3권, 43-44.
21)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75);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22) Arthur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Chicago: Tyndale, 1978), 157.
23) Carl F. Henry and Stanley Mooneyham, eds., One Race, One Gospel, One Task, Vol. I,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67), 25.
24) Ibid, 26.
25) John Stott, "The Lausanne Covenan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23.
26) 1972년 3월 23일과 24일 미국 Florida의 Vero Beach에서 열린 회의에서 빌리 그래함은 전 세계의 복음화에 대한 장애와 전략에 대해서 이차럼 발표했다. "차기의 복음전도대회에서는 '모든 각각의 참가자가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주의적이어야 한다.'" Arthur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Chap. 7.
27) Arthur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Chap. 7.
28) 조종남, 『로잔세계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0), 10.
29) 그 모임들은 다음과 같다: 세계복음화중국협의회(CCOWE: 1976, 1981, 1986, 1991, 1996); 유대인복음화국제대회(ICJE: 1983, 1986, 1991, 1995, 1999); 복음전도를 위한 아시아로잔대회(ALCOE: 1978, 1988, 1992); 복음전도를 위한 라틴아메리카대회(LACE: 1969, 1982); 국제연구원(IRC: 1987, 1996); 1975부터 1980년까지 5년 동안: 국가집회 케냐(1975), 나이지리아(1975), 인도(1977), 가나(1977), 노르웨이(1978)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1978), 베네수엘라(1979), 독일(1980), 과테말라(1980).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직장

직장은 하나님의 훈련장

젊을 때 계획한 커리어에서 벗어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루하루 출근하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울까? 필자도 계획과 많이 다르게 진행된 직장 초년생 업무에 방황했다. 하지만 돌아봤더니 그렇게 해했던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음에 감사하다. 나에게 직장은 성공을 좇는 곳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훈련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필자는 교수가 되고 싶어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교수를 직업으로 하지는 못했다. 주어진 상황에 순응해서 기업의 경제 연구소에서 일했다. 처음 배치된 부서는 전공과 조금 거리가 있는 거시경제 동향분석팀이었다. 경제성장률과 환율, 금리 등의 거시경제지표들의 흐름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보고서를 작성했더니 언론이 인용하면서 라디오나 TV 인터뷰를 할 때도 있었다. 비슷한 주제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되었고, 강의할 기회도 생겼다. 회사에서 주최하는 포럼 기획과 진행을 책임지는 일도 했다.

그동안 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신기한 공통점을 발견했다. 내가 잘하지 못했던 일들, 나의 약점으로 생각했던 일들을 했다는 점이다. 전부 자신 없어서 겁을 먹었던 일들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환율과 금리 등을 다루는 거시경제학 과목은 F를 두 번이나 맞고 세 번째 수강하면서 겨우 마쳤다. 보고서도 최대한 쉽게 작성해야 했다. 솔직히 필자를 포함한

많은 박사가 자신의 글이 멋있게 보이려고 현학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그러나 필자가 근무했던 연구원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글을 다듬는 훈련을 했다. TV 인터뷰도 거쳐야 할 관문이었다. 말을 두서없이 하기로 유명했던 내가 스무 장 분량의 보고서를 15초 이내로 요약해서 말했다.

내가 꿈꾸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일이 일로만 보였다. 업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로 봤을 때 세상과 회사에 불만이 가득했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가정에게까지 끌고 들어왔었다. 당시 집안 분위기가 매우 끔찍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새벽기도로 부르시고, 기다려주시는 덕분에 바로 설 수 있었다. 성공과 성취를 위해 발버둥 쳤지만 잘되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힘썼다. 나를 나보다 훨씬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 자신과 내가 잘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하셨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다. 내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타인에게 그대로 주장하고 주입하기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하라고 하셨다. 훈련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불만기기는 하다. '이렇게 훈련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 것일까?', '세상에서의 일과 직업은 크리스천에게 어떤 의미와 위상

을 지녀야 할까?', '크리스천이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는 중에 위안을 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서를 찾았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직장에서의 일, 즉 직업을 '소명'이라고 했다. 그는 성직자에게만 쓰였던 단어 '베루프(Beruf, 소명)'를 일반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에 처음 사용했다. 루터는 직업이 단순한 '노동'(Arbeit)이 아니라 '소명'(Beruf)임을 천명했다. 또 그는 <고린도 전서>에 자주 나오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직업'을 의미하는 베루프로 번역해서 '직업이란 소명(부르심)과 같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임을 강조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직장, 일터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장에서 이루려는 목적을 위해 힘써야 한다.

크리스천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공해야 한다. 이는 성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성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의미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의 성공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써야 한다. 크리스천은 직장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한다. 크리스천이 있으므로 주변이 편해야 한다. 관계 측면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이 조성된다면 해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불편한 말을 듣더라도 욕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나 자신이 끊임없이 죽어야 한다.

인내하면 바보가 된 것 같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참는 모습을 인정해 주는 날이 온다. 승진해서 리더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과 같이 팀원들을 계속 섬겨야 한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힘들다. 조용히 있으면 편하겠지만, 하나님은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신다. 크리스천이 있는 직장은 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부조리와 부패가 없어져야 한다. 경영은 더 합리적이어야 하고, 결과와 함께 과정보다 동등하게 중요시되어야 한다.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 직장에서의 세상의 일을 구분하지 않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찬사와 축복을 드린다. 때로는 나의 달란트가 세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방법과 계획이다. 밝은 빛과 복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기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우수 요원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홍준표 성도
(온누리세계관학교,
서빙고공동체)

특별기고

낙태약 사용 제한 소송을 기각한 미연방대법원

미연방대법원이 낙태약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 중 첫 번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을 부당하게 확대한 혐의로 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소송은 '히포크라테스 의료를 위한 연합'으로 알려진 의료 전문가 그룹을 대신해 자유수호연합이 제기했다.

2000년 FDA가 이 약을 처음 승인했을 당시만 해도 미페프리스톤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할 수 있었다. 낙태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면 후속 조치도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정의를 확대했고, 2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없앴다.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대면' 요건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가 그해 말 완전히 없앴다. 이를 통해 의사는 원격 진료를 통해 이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는 우편을 통해 이 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돕스(Dobbs) 판결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그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소

매 약국에서 낙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더 많은 제한을 제거했다.

자유수호연합은 FDA의 이러한 조치가 "자궁 외 임신, 심한 출혈,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요건과 같이 낙태약에 대한 안전장치를 포기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활동가들과 주요 언론 매체는 화학적 낙태약에 대해 무책임하게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의료의 문제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사실 낙태약은 낙태의 새로운 전선이 되어 왔다. 그 주된 이유는 재정 수익 때문이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의 산업이었으며, 낙태는 하나의 소비재였다. 2020년 통계를 보면 낙태약은 전체 낙태의 54%를 차지하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낙태의 형태가 되었다.

미페프리스톤은 태아에게 치명적이며 산모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실제로 FDA가 발급한 자체 라벨에는 낙태약을 복용하는 여성 25명

중 1명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될 거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왜 모든 '낙태할 권리'를 중시하고 싶어 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는 미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을까? 이 판결이 FDA가 취한 행동의 가치나 낙태약의 안전성에 관한 주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약물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다.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 방법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소송은 원고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시 말해, 원고인 낙태 반대 단체들이 '정부의 규제 미비로 인해 어떤 피해를 봤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대법원은 '로 판결'이나 최근의 '돕스 판결'에서 낙태 문제를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일은 여전히 우리 손에 남아 있다.

이제 낙태약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의 전쟁터이며, 훨씬 더 사유화되고 규제하기 어려워졌을 뿐이라는 점이 명백해졌

다. 그러므로 낙태약을 겨냥한 추가적인 사법적,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페프리스톤의 광범위한 유통과 통신 판매를 제한하는 기존의 생명 보호 법안을 각 주 및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임신 지원센터가 진보적인 주 관리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생명을 존중하는 주와 낙태를 찬성하는 주 모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페프리스톤 복용 이후 마음을 바꾼 산모 덕에 태아를 살리는 데 놀라운 성과를 보인 바 있는 낙태약 역전 치료(첫 번째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했지만, 낙태 진행에 대한 마음을 바꾼 임신부에게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는 방식)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치유를 제공해야 한다. 낙태약과 외과적 낙태 수술을 종식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원문: breakpoint(2024.06.15)

/ 존 스톤스트리트, 자렛 헤이든

호국보훈과 크리스천

6월의 비목(碑木)



김수민 권사
(칼럼니스트,
동대문중앙공동체)

여고 시절 음악 선생님은 바리톤이었다. 베토벤같이 장발 곱슬머리를 이마 뒤로 넘긴 총각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앞에서 피아노를 치며 가곡이나 오페라 아리아를 잘 불러주셨다. 음악실 너머

교정으로 울려 퍼지는 선생님의 노래는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었고,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그중에 ‘비목(碑木)’이라는 가곡이 있었는데, 비목의 뜻을 모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

“여러분 또래이거나 몇 살 위인 학도병들이 6.25 당시 징집되어 이름 모를 땅에서 전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 녀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는 전쟁 중 전사한 전우를 그 자리에 대충 묻고 나뭇가지를 십자가 모양으로 세워 그 위에 전사자의 철모를 씌워놓고 짧은 묵념 후 급히 이동하거나 그마저도 할 수 없었던 처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어린 시절 추억이 살아있듯이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이끼 되어 땀했네!’라는 가사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홀로 선 적막감에 울어서 지친 비목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면 좋겠어요.”

매년 6월 열리는 대한민국 군가합창단 정기 연주회에 올해도 참석했는데, ‘비목’을 다시 접하게 되었다. 기억이라는 주제로 연주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군가와 ‘전우야 잘 자라’, ‘진짜 사나이’, ‘팔각모 사나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우렁찬 합창의 화음으로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다. 이 군가들이 장병들의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충성심과 전우애를 키워줬을 것이다. 그중에서 나는 여고 시절 교실에서 처음 접했던 ‘비목’을 들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마 두 아들을 군대에 보냈던 나의 심정과 아직도 아들의 비목을 가슴에 품고 사는 엄마들의 심정이 만났기 때문 아닐까.

주일에배 때 자모실에서 아기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반복되는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다. 다른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거나 과자를 주는 사람한테 잠시 갔다가도 자신들의 엄마 아빠에게 이내 돌아와 안기는 모습이다. 6.25 당시 전투에 참여한 한국군과 유엔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부모들도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나의 이모님은 새댁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으셨다. 그런데 새벽이슬 같은 두 아들이 6.25 때 징집돼 나간 이후 전사 통지서로 돌아왔을 때 실신하셨다. 두 아들의 유품으로 뒷산에 묘를 만든 이

“그들의 희생 기억하고, 국민 의무를 다하는 게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자 도리임을 되새기자!”



모님은 매일 올라가 그리운 모정으로 오열하며 기도하셨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내가 다행히 한 예비역 장성을 통해 절치를 밟아 얼굴도 모르는 두 오빠의 유품을 수습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물론 연세 많은 이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신 뒤였지만, 남은 형제자매들이 감격했다.

요즈음에도 자녀를 군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마찬가지다. 동작동 국립묘지와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본 적이 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유족들은 오열한다. 부모들은 전사한 자녀가 배 속에 있었을 때부터 아장아장 걸어오던 모습, 청소년기 모습까지 스르르처럼 기억 속에 스쳐 가며 더욱 아픈 가슴을 부여잡는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나라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이 기적같이 유엔 결의를 통해 인류 전쟁 역사상 최다 참전국을 파병하게 해주셨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튀르키예, 태국, 남아공,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16개국은 병력지원국으로,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서독 등 6개국은 의료지원국으로 참전했다. 1953년 휴전을 맺을 때까지 한국전에 참여한 미군이 341,000명, 연합군이 39,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사, 부상, 실종으로 희생된 한국군 피해자는 621,479명에 이른다. 유엔군의 희생자도 154,88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누군가의 귀한 가족들이다. 안타까운 죽음이고,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전사자 2,328명 중에는 결혼 8일 만에 한국으로 떠난 아버지도 있고, 약혼자와 이별하고 한국전에 참가한 오빠도 있다. 아버지가 한국전에서 전사하고 어머니와 네 남매가 뿔뿔이 흩어진 사연도 있다. 유엔기념공원에도 무연고 전사자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6월에는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면 좋겠다. 지난 2000년 시작돼 수습된 국군 전사자 유해가 모두 1만 1,000여 구다. 신원이 확인된 분들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비목으로 서 있는 아나, 비목의 흔적조차 없는 영혼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자녀의 병역의무 기피는 용서할 수 없는 쟁점이 되곤 한다. 병역기피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매년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병역기피자가 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본(本)을 보여야 하는 기독교인

기독교인의 국가관은 다양한 신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순종하고, 법을 지키며, 권위자들을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크리스천들이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함이다(벧전 2:13-17). 그러면서도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강조한다. 이는 교회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앙 활동을 유지하고,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금이나 병역의무에서도 크리스천들이 본을 보이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마 22:21)에서 비롯된 원칙이다.

특히 교회와 기독교인은 나라의 흥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기에 더욱 국가 안보와 부국강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목회자들이 많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선 지도자급 인물들도 기

독교인이 많았다. 특히 ‘제암리교회’는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다. 1919년 3월 31일 정오, 발안 장터에 모인 주민 천여 명이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는 칼로 주민들을 살해하고 소학교에 불을 질렀다. 시위는 계속되었다. 당시 제암리교회에서는 문맹 퇴치와 신문화운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본군은 그간의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4월 15일 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교회로 15세 이상 남자를 모이게 하고, 교회 밖에서 포위하고 집중사격을 한 뒤 쫓겨나고 석유를 끼얹고 교회를 불태웠다. 민가에도 방화를 저질렀다. 이 사건은 일제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제암리교회는 이후에도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 있는데, 1960년대 교회 건물이 재건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이곳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역사를 되새기고 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사명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인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과 사회 개혁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민족의 미래를 위해 세워진 미션스쿨과 병원은 선교사들과 기독교인 지도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들은 신앙교육을 통해 민족의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6.25 전쟁 중 북한에서는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고, 예배가 금지되었다. 평양 장대현교회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남한으로 탈출했으나 그의 많은 동료는 체포되어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했다. 유물론 공산주의와 유신론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기에 탄압의 대상이 되어왔다. 많은 성직자와 성도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다. 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고, 지하 교회가 형성되었다. 남한 역시 전쟁 중 많은 교회가 파괴되었지만, 천막을 치고 예배를 이어갔다. 다음 세대를 위해 주일학교를 열었다. 남한에서도 기독교는 피난민들을 돕고 사회적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교회는 교육, 의료, 구호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은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큰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깊이와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희생과 핍박 속에서도 애국심과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신앙 선조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비목이 십자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의 시대적 도리임을 되새기자.

함께 배우고, 섬기고,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10기 장로아카데미 종료, 현재까지 장로 354명 수료

온누리교회의 아름다운 유산 중에 '장로가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관리하는 전통'이 있다. 온누리교회 장로들의 겸손과 헌신의 영성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다. 권위적이고, 지나치게 근엄한 장로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그 아름다운 영성이 장로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4일(화) 10기 장로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었다. 온누리교회 장로 24명이 수료했다. 장로아카데미는 온누리교회 장로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 친교를 돕는 '학습공동체'다. 장로 장립 이후 사역에 집중하다가 놓치기 쉬운 영성과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고,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사역팀의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장(場)이다. 장로아카데미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배우며 성장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 장로 354명이 수료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10기 장로아카데미 장로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 사역 등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다.

‘장로(長老, elder)’의 사전적 정의는 ‘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평신도 최고의 직급’이다. 평신도 최고의 직급에 오르면 자칫 우쭐하거나 이제 사역에서 한발 물러나 감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법하다. 인간에게는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장로들은 다르다. 그럴 생각이 없다. 솔선수범해서 사역 최전선을 달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 사회에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온누리교회 장로들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장로아카데미는 2016년 문을 열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이해하고, 교회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기초로 배움을 실천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었다.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섬기는 공간이 필요한 이유도 있었다. 2015년 당시 당회서기 정과

중 장로가 제안하고, 당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신규사역으로 출범했다. 이장로 장로는 8인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2016년 1월 10일 첫 실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2016년 3월 29일 1기 장로아카데미가 12주 과정으로 개강했다. 실행위원 장로들을 포함해서 45명이 참가했고, 43명이 수료했다. 그 이후 1년에 한두 번씩 장로아카데미 과정이 이어졌다. 현재까지 10기 과정을 마쳤다. 7기 장로아카데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과정을 진행했다. 그 덕분에 아부다비, 홍콩, 시드니, 미주 4개 교회 등 해외비전교회 장로들까지 참석해 41명이 수료했다.

장로아카데미의 비전과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작은 예수 같은 장로, 예수를 바로 보여 주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다. 둘째, 교회와 국가를 섬기는 장로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것이다. 셋째,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는 친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온누리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이재훈 위임목사), ‘온누리교회 역사’(박종길 목사), ‘장로교의 역사’(장신대 교수) 등을 주제로 강의를 듣는다. 그다음에는 선교 중심의 온누리교회 사역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

해외선교’, ‘사회선교’, ‘이주민선교’ 관련 특강을 듣는다. 장로들의 영성 개발을 위한 강의도 있다.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관계와 소통’,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를 이해하고, 교회의 다음세대들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훈련도 한다.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의 책임’, ‘AI와 문화선교’, ‘기독교 세계관과 생명윤리’ 등을 주제로 강의를 듣는다. 수준 높은 강의 외에 조별 활동도 한다.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및 발표를 하고, 중보기도와 성경일독 등을 한다.

11기 장로아카데미는 2025년 3월 개강할 예정이다. 12주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진행된다. 현재 장로아카데미는 김명세, 김명현, 김인선, 민문기, 박균명, 유재홍, 이경훈, 이석일, 이승배, 전구영, 정운섭 장로가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김명현 팀장 장로는 “장로아카데미는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자 선물”이라며 “더 많은 장로가 참여해서 함께 배우고, 도전받고, 은혜 누리고,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문의: 010-4048-5546(전구영 장로)

장로아카데미 수료 간증



오상록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니를 쫓아 오는 러시아 미사일처럼 집요하고 포기가 없다.

그 덕분에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이 벌써 다섯 번이나 부활하셔서 나한테 큰 도움이 되신다. “아버님이 편찮으셔서”라고 말씀드리면 거절당하는 쪽에서도 그냥 쿨하게 “내년에 연

락드리겠습니다”하고 물러선다.

지난해까지 그토록 열심히 피하던 장로아카데미를 올리는 피할 수 없었다. 절친한 동기 장로님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버님이 더는 살아나실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다시 학생이 되었다. 여주 집에서 양평역까지 운전하고 와서 기차로 바꿔 타고, 청량리역으로 향한다. 청량리역에서 전철로 갈아타서 서빙고온누리교회로 가는 왕복 4시간 숨 가쁜 일정이 시작됐다. 이 수동적이고 불만스러운 나의 불량한 태도는 영종온누리교회를 방문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인천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길목이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한 달 가까이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하면 형편이 준비되는 대로 부산을 거쳐 인천으로 입국했다. 푸르고 잔잔해서 마음마저 뺨 뚫리는 바다가 아니었다. 탁하고, 오만하

어느 도망자의 고백

고, 공격적인 바닷길을 세상 물정 모르는 외국인 청년들이 설렘과 뛰는 가슴을 안고 건너왔다. 선교사들이 처음 조선을 바라봤을 그곳에 영종온누리교회가 서 있다. 그 근처 바닷가를 거니는데 목포로 가던 중에 배가 전복돼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사라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떠올랐다. 당시 그의 나이 44세였다. 7살 된 딸과 2살 된 아들을 젊은 미망인에게 남기고 떠났다. 지금도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떠올리고 있는데 5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온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영원히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잊히고 있었다. ‘오 장로! 도대체 너의 실체가 뭐야?’라는 마음의 울림이 올라오며 후회와 반성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 이후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다. 장로아카데미 매시간이 은혜였다. 찬양은 깊고, 감동적

이며, 기도는 구절구절 살아나서 숨통을 터뜨렸다. 강사로 오신 선배 장로님들이 그렇게 탁월하신지 지금껏 몰랐던 내가 부끄러웠다. 연배가 높은데도 늘 겸손하시고, 섬김의 본이 된 장로님들과 오랜 시간 거절을 들으면서도 이 자리를 지켜오셨을 실행위원회 장로님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했다.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말라버린 겨울나무 같던 나도 이제는 새싹이 돋고 제법 꼴을 갖추었다.

장로아카데미가 살아있는 한 온누리교회 장로는 갱생하리라. 아직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하지 않은 장로님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도망 다니다가 결국 붙잡혀 졸업했으니 “당신들도 반드시 해야 해”라는 물귀신 심정이 아니다. 영혼이 순수해지고, 가슴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를 꼭 나누고 싶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가장 작은 자, 소외된 이웃에게 진리와 사랑을!

도시 속 작은 교회와 함께 걷는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



이영근 장로
(도시미자립교회
지원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할은 규모의 크고 작음과 성도의 많고 적음과 전혀 무관하다. 성도들 역시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명성이 있고 없고와 전혀 상관없다. 성령님이 임재하

시는 교회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성도가 있으면 된다.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온다. 감사하며 사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말씀을 따르고 실행하게 하고, 실행은 곧 복음 사역으로 이어진다.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지금도 멈추지 않고 복음 사역을 실천하는 도시미자립교회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실천하며 선교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시작한 사역팀이다.

도시 속 작은 교회와 도시미자립교회 지원팀

도시 속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가 미처 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세심하게 감당하고 있다. 장애인 사역과 다문화 아이들 돌봄 사역, 한 가정 아이들 돌봄 사역, 군복이 없는 군인교회 장병들을 섬기는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교회가 참 많다. 작지만 꼭 필요한 사역들을 보이지 않게 실천하는 교회들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어 주신 은사대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

도시미자립교회가 우리보다 많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보다 큰 열정이 있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를 통한 전도 활동을 펼치는 모습 등을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은 도시미자립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섬기고 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 작은 교회들이 하던 돌봄 사역들이 코로나19 격동기를 겪으면서 궁색함과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도,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계기로 삼아 영적으로 왕성함을 얻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사그라든 지금은 매우 활발하고 쉬지 않는 돌봄으로 국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름 없이 이웃들을 섬기는 도시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2023년 사회선교본부 소속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이 탄생했다.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은 도시 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교회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일할 수 있는 용기와 영적인 힘을 나누고 있다. 도시미자립교회를 방문해서 교제하며 협력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응원하면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도시미자립교회 지원팀의 네 가지 사역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은 믿음으로 성숙한 지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역하고 있다. 그 어떤 사역팀보다 활성화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도시미자립교회의 자립과 부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

첫째, ‘1다락방 1사역’이다. 온누리교회 공동

체에 도시미자립교회를 소개하고 연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일례로 관악금천공동체가 군산지역 미자립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성도들과 노방전도를 함께했다. 군산지역 미자립교회뿐만 아니라 관악금천공동체 성도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은혜를 체험했다. 이 일을 계기로 가정사역공동체, 일산공동체, 강촌공동체, 강동온누리교회 등과 도시미자립교회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고, 삶을 나눈다. 함께 예배하면 성령님이 도시미자립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 도시미자립교회에서 몇 분의 성도와 예배드리다가 온누리교회 다락방 식구들이 참석하면 예배 분위기가 달라진다. 도시미자립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더 깊은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다. 생동감 있는 말씀을 통해 더 많이 듣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에서는 상반기(11주), 하반기(10주) 21개 도시미자립교회 예배 회복을 위한 비전트립을 할 예정이다. 매주 주일 1개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와 식사 교제를 할 계획이다.

셋째, 그 교회의 특별한 사역을 배운다. 도시미자립교회들은 정예 군사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역의 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거침없이 사역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실행한다. 그래서 도움을 주러 간 우리가 오히려 영적 도전을 받고,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다.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의 사역은 여러 성도의 기도와 후원, 다양한 사회선교 기관이 함께 섬기고 있다. 이랜드재단, 이웃사랑, 엔젤트리, 사르밈프로젝트, 나눔장터, 농어촌선교팀 등과 협력하고 있다.

넷째,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아우르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장(場)을 만든다. 사회선교본부 창립 10주년 행사를 계기로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도시미자립교회 사역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그 첫 사역으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도시미자립교회 블레싱데이’로 준비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사회선교 10주년 행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동역자 50여 명이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도 할 것이다. 도시미자립교회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온라인(Zoom)이지만 많은 성도 앞에서 목사님들이 처음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될 거로 생각한다.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 사역을 시작하면서 21개 교회를 탐방했다. 도시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 목사님들은 코로나19 이후 성도수가 줄고, 재정과 여건이 열악한 상태이지만, 교회를 찾아오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에 거룩한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셨다. 가장 작은 자와 소외된 이웃에게 진리와 사랑을 비추는 도시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기대한다. 문의: 010-8227-9751

도시미자립교회에서 온 편지



안대현 목사
(군산명성교회)

살롱!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께 작지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베풀어 주신 군산명성교회를 향한 기도와 사랑에 깊이 감사합니다. 군산명성교회는 온누리교회에서 보내

주신 선교헌금이 투명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산명성교회는 온누리교회의 도움에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명성교회에 보내주신 헌금은 홈페이지 제작, 유튜브 채널 개설, 전도 용품 구입, 국내 선교비(장애인 섬김 교회), 국외 선교비(M국 E선교사님), 몽골단기선교팀 식비 지원 등에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군산명성교회는 등록 성도가 4명이 되었습니다. 폐교회가 될 뻔한 교회, 한 달 동안 불이 꺼진 교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중에 시각장애인이 한 분 계시는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최근 심각한 우울증이 사라져서 생계 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실시한 엔젤트리를 통해 패딩을 선물 받으신 분들입니다.

교회 예산을 살필 때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

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보내주신 사랑의 마음과 물질을 보내주시기까지 삶에서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전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군산명성교회는 매일 기도회를 하며 온누리교회와 관악금천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군산명성교회도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군산명성교회의 질적, 양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 기억합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 3:32~33)

말씀과 믿음의 삶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고 근심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고난과 근심이 많은지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있다. 어떻게 고난과 근심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며,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소망이 많은 분”이라고 말한다. 언약은 마치 결혼한 부부 관계와 같다. 부부의 사랑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반대로 인간의 요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본심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면 그 거룩한 사랑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받 하신다. 관계성의 위기로 인해 우리는 고난과 근심에 놓이게 된다. 생각해 보라. 사랑하는 부부라면 어떻게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른 이와 외도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고난과 근심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이라 생각해야 한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은 고쳐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고난과 근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돌아보게 하셨다. 그것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

활이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죄를 버리고, 다시 언약적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인의 불성실함에도 언약을 쉽게 파기할 수 없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끝까지 인자와 자비,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을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고난과 근심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사람은 본성상 좋은 것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언약적 사랑이며, 거룩한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에 고쳐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의 죄는 끊어져야 하고, 제거되고 멸망 당해야 한다. 그것이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다. 이 순결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언약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비결이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쓴 축

과 담즙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다.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낮과 같은 시간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다. 어두운 밤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시련을 통해 내 영혼이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인내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장래에 평안을 주려함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렘 29:11).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6월 24~30일

〈열왕기하〉 3:13~5:27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을 보시고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유다 왕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묵상하자.

▶모압을 치려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마실 물이 바닥난 곤경에 처한다. 엘리사는 “물 없는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바람도 비도 없으나 개천에 물이 가득할 것이며, 이로 인해 물을 공급받고 전쟁에서 이길 거라 예언한다. 엘리사의 말대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자 모압 사람들은 아침 해가 비쳐 붉게 보이는 물을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 피 흘린 것으로 착각해 공격을 감행한다. 연합군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을 물리친다.

목상포인트 2: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의 갑옷이 자신에게 있기를 구했던 엘리사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 땅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다.

엘리사가 행한 여러 기적 사건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묵상하자.

▶선지자의 제자 아내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엘리사가 말씀에 순종해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온 여인은 집에 남은 한 그릇 기름을 거기에 붓는데,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는다. 엘리사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라고 말한다. 수넴에 사는 한 귀부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는데, 엘리사는 그녀가 1년 후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 예언한다. 수넴 여인은 아이를 얻고 기뻐했으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죽고 만다. 여인은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를 데려오고, 엘리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낸다. 엘리사는 흉년으로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고자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기적을 베푼다. 또 보리떡(보리 빵) 20개와 채소(헛곡식)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한다.

목상포인트 3: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치유는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에 대해 묵상하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여종에게서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 아람 왕의 친서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지만, 엘리사는 사

자를 통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전한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하지만, 종들의 설득에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 나병이 깨끗이 치료된다.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고백하며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한다. 나아만을 속이고 예물을 받아 숨긴 게하는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고 나병에 걸린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입기를 소망하며, 신실한 삶을 선택하자. ▶하나님은 곤핍한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다. 문제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내 생각보다 넉넉히 채워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문제를 아뢰자. ▶수넴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사역했던 엘리사를 돕는 데 힘썼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이들의 필요를 생각해 보고, 실천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일이 무엇인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신뢰하자.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자. ▶나아만의 예물을 욕심내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는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탐욕과 바꾸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내 중심을 살피며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건강을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는 4기 암 환자입니다. 그동안 항암제를 거의 다 써서 임상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 다. 현재 폐에 암이 늘어났고, 림프 전이도 늘어나 임상 항암 치료가 종료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허투 번이가 있어서 약을 복용해도 될지 가능 여부를 한 달 뒤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파스한 손길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현재 암이 난소, 폐, 뼈, 대동맥, 림프에 전이 된 상황입니다. 난소는 이미 수술을 마쳤고, 전이 된 다른 부위에 항암제를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받는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남편이 구원받고, 언니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만나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이 전이 된 폐, 뼈, 대동맥, 림프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더는 암이 전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들 예준이와 함께 오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 편은정 성도(서산온누리교회)



사진은 지난 4월 27일(토) 열린 2024 행복한 가정레이스 '달려라 풍당' 개막식.

2024 '달려라풍당' 시상식

6월 27일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센터 소극장

2024 행복한 가정레이스 '달려라 풍당' 시상식이 6월 27일(목) 오후 7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감동적이고 우수한 사연을 남긴 참가자를 위한 '최고사연상' (4명), 운동 최다 횟수 및 거리 기록을 세운 참가자를 위한 '최다/최장거리상' (3명), 달려라풍당 사진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을 남긴 차세대 참가자를 위한 '차

세대어린이상' (5명), 달려라풍당 홈페이지에 사진과 사연을 남긴 참가자를 위한 '베스트포토상' (10명)을 시상한다. 최고사연상 1등(1명) 아웃백상품권 50만 원, 2등(1명) 아웃백상품권 30만 원, 3등(2명) 아웃백상품권 20만 원, 최다/최장거리상 1등(1명) 가민 포러너165뮤직, 2등(1명) 가민 스윙2, 3등(1명) 실내용 사이클 스피드 바이크, 차세대어린이상

어린이자전거(18인치), 베스트 포토상 바이블북 레고를 선물로 준다.

2024 달려라풍당은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어졌다. 성도 3,707명(1,296가정)이 참가했다. 가족, 공동체와 함께 목표 활동량을 채우고, 총 6천 5백여 만 원을 후원했다. 달려라풍당 후원금은 가정 및 다음세대를 위한 CGN 콘텐츠 제작 및 국내외 라이선싱에 쓰인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깜놀 히브리어 강좌

7월 8일~29일까지 온라인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깜놀 히브리어 강좌'를 개설한다.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히브리어에 관심 있거나 배우고 싶은 성도와 목회자가 대상이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1강씩 업로드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깜놀 히브리어 강좌는 히브리어 알파벳과 모음, 음절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요엘 교수(전 한동대 아릴락 교수)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456

6월 세례자

〈대학청년부〉	입교
■허브	김윤서 020501
김호윤 990621	박수빈 960419
장 현 980506	

양재 만남의 잔치

강남A	제근오	조성일	하인숙
홍덕희	박윤경	김종희	서연주
홍훈철		오은정	김지홍
최병관	강남B	이정희	박병주
박정석	양윤정	권경희	
이상은	정미영	강남C	김계성
이주희	여민호	정필윤	성명은

NGO 더멋진세상, 탄자니아 홍수 이재민에 긴급구호 물품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탄자니아 홍수 이재민 약 2,500명에게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탄자니아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속된 폭우로 루피지강물이 범람해 155명이 사망했고, 5만여 채 가옥이 침수됐다. 이로 인해 이재민이 20만 명이나 발생했다. 우물이 침수되고, 전기공급이 끊겨 식수원마저 사라

졌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탄자니아 홍수 이재민 500가정에 옥수수가루 25톤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식수 공급을 위한 우물 펌프 발전기 2대와 중학교 교실 바닥에서 취침하는 학생들을 위한 매트리스 70개도 지원했다.

/ 홍하영 기자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명지대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가 오는 7월 29일(월)부터 8월 3일(토)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60주년 기념채플관에서 진행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를 주제로 하스데반 선교사, 경배와 찬양 국제사역팀, 하신주 선교사가 인도한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는 미

래 세대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어린이를 위한 경배와찬양학교가 열린다. 참가신청은 경배와찬양 홈페이지(allenationen.org)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7000school@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796-9700

두란노어머니학교 진행자·스태프 스쿨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양재 드림홀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진행자·스태프 스쿨을 개최한다. 6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열린다. 두란노어머니학교를 수료한 성

도, 팀장 혹은 봉사자, 진행 경험이 있는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원이다. 문의: 02-2182-9110

온누리교회 선교 중보기도 연합모임

7월 6일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온누리교회 선교 중보기도 연합모임이 7월 6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2000선교본부 산하 권역별 중보기도팀에서 주최한다. 세계 각 지역 선교사들과 중보기도자들에게 선교 중보기도 연합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다. 올해 9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의 취지와 의

미도 소개한다. 온누리교회 선교 중보기도 연합모임에서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선교 연합 중보기도의 능력', 배행삼 목사(2000선교본부)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의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구글폼(하단 QR 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선교 중보기도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5428-8819, 010-3797-3684

/ 홍하영 기자



263기 결혼예비학교 개강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강의

263기 결혼예비학교가 개강한다.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강의가 2개씩 업로드되고, 게시일로부터 10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263기 결혼예비학교에서는 유수열 목사, 황규복, 김숙경 부부강사, 김의수 센터장, 이연숙, 이범석 부부강사가 '결혼의 성경적 가르침', '너와 나, 다름의 축복', '신혼, 재정의 첫걸음'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2078-3263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7월 27일부터 매주 토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는 하나님 주신 아버지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2657-1875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온누리와 함께 만드는 <온누리신문>

말씀 해설, 중보기도,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 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평소 성도들이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 주고, 한 주 동안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말씀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daa2@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

'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에 소개할 차세대들의 작품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화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준다.

문의: 02-6959-0001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창조탐험대 참가자 소감



/ 박세희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고3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의 실체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그때 창조탐험대 소식을 들었다. 당장 모의고사를 앞두고도 했고, 대학교 원서접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서 1박 2일을 쓴다는 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조탐험대에 참가하기로 했다.

창조탐험대 첫 방문지는 전라북도 부안 격포 해수욕장과 채석강이었다. 뿔 뚫린 바다와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동하며 들은 흥미로운 강의와 실제 눈으로 보는 경험이 합쳐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판하심에 대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이 생겨났다. 기독교사박물관에서는 선교사님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사명과 뜨거운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마이산, 금산교회 등을 방문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정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놀라움과 신비의 감정을 주셨다. 중간중간 버스에서 그동안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던 성경과 창조에 대해 마음껏 질문할 수 있었다. 질문할 때마다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최고의 답변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이튿날 주일 설교에서는 내 생각을 읽은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들었다.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해 보이는 벽 앞에서 힘들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창조탐험대 탐사도 내가 고민하고 결정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 주고자 하신 게 있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회 건물 밖으로 나와 일상을 살다 보면 나의 믿음이 쉽게 잊히고 사라졌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패션캠프, 주일예배, 큐티 모임 등을 통해 매번 나를 놓지 않고 계속 부르셨다. 이번 창조탐험대에서도 의심 많은 내가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실체들을 직접 보여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더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작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를 창조탐험대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이앤드류희 어린이(양재초등부)

나는 삼위일체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삼위일체와 관련된 책들을 읽었다. OBC, OGP 영상 강의도 찾아 들었는데,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부터 놀라웠다. 너무 궁금해서 미리 예습을 끝낸 교재 내용과 질문이 너무 쉬워서 실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과정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머릿속에 무수히 많은 성경 말씀과 생각을 넣어 주셨다. 한 과당 평균 4시간 정도 학습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학습 시간이 길어져서 어머니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연장 교육을 하느라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준비는 아버지가 담당하게 됐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12주 교육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게 하신 12가지 사건이 있다. 그중에서 세 가지 기쁨을 나누고 싶다. 첫째, 케냐에 계시던 아버지가 예상치 않게 2년 만에 귀국하셔서 일대일제자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둘째, 3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홉 번째 생일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덕분에 더욱 성장할 내 모습을 기대하는 아버지의 특별기도가 있었다. 셋째, 차

하나님이 적어주신 '제자 신분증'

세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7일을 완주했다. 우리 집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123km 떨어진 세종시다. 매일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 준비해야 새벽 5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새벽기도회 참석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응답받았다.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인 올해 1월 20일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완료했다.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세족식 내내 마음에 차오르던 기쁨과 자유함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양육과정 이후에도 이어졌다. 내가 전도여행팀 정식 대원으로 입단해서 섭외 담당 보조직을 맡게 되었다. 사순절부터 시작된 올해 전도여행을 사도 바울처럼 충실하게 4차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처음 떠난 은혜의 전도여행에도 감사했다. 출국하시는 아버지가 공항에서 당부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강하고 단단한 마음을 주셔서 지난번보다 크게 울지 않았다.

지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 이름을 적어주신 '제자 신분증'이 있는듯한 감동이 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전도학교 수료 간증



/ 손영순 성도(양천공동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는 늘 어렵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관심 밖이었다. 그랬던 내가 전도학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친정 부모님 때문이다. 지난해 '행복드림콘서트'에 부모님을 초대했다. 부모님은 그 일을 계기로 세례를 받으시고 집 근처 교회에 출석하시는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고, 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전도대상자였던 제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동생 집을 방문했다. 동생 집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학교 숙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려니까 주저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먼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전도대상자를 옆에 앉히고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며 전도지 내용을 알려줬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말 대신 "5분이라더니 10분이 지났네요"라는 싱거운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전도에 대한 작은 용기가 생겼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나는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학부모들 정서상 종교는 민감한 부분이고, 사교육 기관에서 대놓고 전도할 수도 없었다. 그 고민이 영화 감상 수업에서 해결되었다. 그날 설명하는 작가의 작품 중에서 성경 내용이 표현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구나' 생각이 들었다. 작가의 그림 설명을 위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수업에서 그 내용을 설명했더니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반겼고, 모르는 학생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들었다.

열정적인 조장님 권유로 주말에 지인 3명과 '도표 그리기' 숙제를 했다. 3명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반응이었지만,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작은 관심의 씨앗이 심어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마음의 변화는 작는데 큰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만남을 기대한다.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한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순예배 간증



/ 김성환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3부 일요주일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등포구로공동체 여성 4순 순장님이 순예배 장소를 물색해 자리를 잡고 기다리신다. 순원들이 하나둘 모이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돼 있음을 느낀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여성 4순 순예배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고단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감당한 이야기를 나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은 다른 상황에서도 위로하고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다.

여성 4순은 2018년부터 함께 해온 순장님과 순원들, 그 이후 합류한 순원까지 총 8명이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기까지 2년을 보낸 내가 용기 내 순에 들어갔다.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면서 순에 합류했는데, 처음부터 순예배가 편안하지는 않았다. 나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 오랜 시간 억눌린 내면의 불안함이 올라오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 교회에서 만난 지체들을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보고 믿지 못한 까닭도 있었다. 하지만 주일예배와

나와 여성 4순의 만남

지속되는 순예배에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교제하며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순예배를 통해 나의 교만을 깨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 주셨다. 좌절한 영혼을 위로하셨다.

우리 순장님은 중보기도에 힘을 많이 쏟으신다. 연초에 받은 기도제목을 매일 한 명씩 단체대화방에 올려 함께 기도하고, 주일 순예배에서 추가되는 기도제목을 나눈다. 나는 매일 아침 기도제목이 올라오면 순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한다. 기도제목에 순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으면 순예배에서 눈물로 기도한다. 순원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여성 4순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순예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가며 감사하고 있다. 내가 순에 속하게 하시고, 예배와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장로칼럼

故 민성기 선교사를 추모하며



김종호 장로
(경기A공동체)

“살롬! 아침에 눈을 떠 책상 위를 보니 사진 속 민샘(민성기 선교사)이 환한 웃음으로 반겨 줍니다. 남편이 없어도 여전히 전한 세상은 무심해서 나를 당황하게 하지만, 고통 없는 아버지 집에서 기뻐 감사 찬양할 그를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동안 기도로, 후원으로 많은 힘과 위로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조문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받은 사랑 잊지 않고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최윤숙 선교사가 지난해 민성기 선교사의 장례를 마치고 단체채팅방에 나눠주신 인사다.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 민성기 선교사는 1999년 스리랑카로 파송이 되어 교회개척 사역을 하셨다. 2007년부터는 캄보디아에서 교회개척 사역과 제자양육 사역, 차세대 사역에 헌신한 자랑스러운 선교사였다. 민성기 선교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현지에서 감염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2000선교본부의 용기있고 빠른 결정으로 2021년 9월 24일 캄보디아에서 에어앰블런스로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22년 1월 12일 폐 이식 수술, 4월에는 기관지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았다. 응급한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퇴원하셨다는 소식에 건강이 잘 회복되신 줄 알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1일 민성기 선교사가 주무시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다. 그 일이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사무치는 그리움을 몰고 온다.

민성기 선교사는 중학교 1학년 시절 선교사

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평생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교회가 있었다면, 민성기 선교사에게는 엄뎡교회와 르영교회가 있었다. 에베소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있었다면, 민성기 선교사에게는 사론과 댄 같은 교회 지도자가 있었다. 20세기 최악의 학살 사건 킬링필드가 있었던 영적 암흑의 땅 캄보디아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불교가 96% 이상, 기독교가 0.5%밖에 되지 않는 미전도종족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 우리 모두 민성기 선교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있다. 건강을 회복한 민성기 선교사와 함께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건너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망고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다.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원대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심을 감사한다. 캄보디아보다 훨씬 좋은 천국으로 부르셨으니 감사하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 이루기 위해서 생명이 아까지 않은 민성기 선교사가 정말 자랑스롭다. 투병하는 동안 우리 모두를 기도의 끈으로 묶어주신 것도 감사하다. 민성기 선교사의 소원으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더욱 확대되고, 재생산되기를 기도한다. 민성기 선교사가 뿌려 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꽃을 피우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유가족을 위로하기를 바란다. 다시 캄보디아 땅으로 들어가서 엄뎡교회와 르영교회, 그로바흐마을과 콤포트마을의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최윤숙 선교사의 기도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민성기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그림습니다.”

권사칼럼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는 자녀



조광자 권사
(영등포구로공동체)

매일 매스컴에서 듣는 뉴스들이 머리와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해도 TV를 틀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했다. ‘이게 정말 국민이 보고 들어야 할 뉴스인가?’ 싶은 소식도 많다. 특히 정치 뉴스들은 일상마저 혼란스럽게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긴장감은 두려움을 몰고 오기도 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때마침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진’이 막 올랐다. 이번 마리아행진 주제는 ‘엎드림’이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집회에 참석했다.

마리아행진 3일 내내 말씀이 정말 좋았다. 이재훈 위임목사님부터 이인호 목사님, 이한영 부총장님까지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다. 세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하나 없이 내 마음 밭에 심겼다. 그중에서도 둘째 날 이인호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다. 이인호 목사님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도 사건을 말씀하셨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었던 ‘미스바 기도운동’ 이야기에서 내 갈급함과 기도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해야 할 기도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기도는 개인적인 고통, 어려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등에서 비롯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춰 가며 승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새삼 깨달았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

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이끌어가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려 한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교회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모두 형통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어찌면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 내가 권사로서 온누리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 생활하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통찰해 봤다. 이인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 둘만 있는 곳에서 내 죄가 벌거벗어진 듯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모두 고백하고, 진정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싶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한다. 내가 가는 길마다 감히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망한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딸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고 싶다.

신앙에세이



조호영 목사
(여성사역본부장)

올해 ‘마리아행진’ 집회가 시작되기 전 박종길 목사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온누리교회의 많은 사역 중에서 마리아행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난 15년 동안 매년 6월 하나님이 수많은 여성을 기도의 자리 마리아행진으로 불러주셨다. 개인의 기도제목을 넘어 나라와 민족, 열방,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도록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기도의 줄을 잡도록 인도하신다. 특히 올해는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뿐 아니라 해외비전교회(일본, 시드니 등), 경북 상주교회, 인도네시아 람퐁에서

온 교역자와 여성 지도자들까지 함께했다.

또 감사한 것은 해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그 해의 마리아행진 주제를 주신다. 매년 3월 여성사역 교역자들은 함께 모여 그날의 큐티를 나누고, 기도하며, 마리아행진을 준비한다. 올해는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만장일치로 ‘엎드림’을 주제로 정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란 무엇인가? 완전한 항복이다. 용서를 간구함이다. 자아의 포기이자 죽음이다. 가장 낮은 겸손함이고, 온전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함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경배함이다.

마리아행진 첫날 ‘용서의 엎드림’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다. 둘째 날에는 ‘간구의 엎드림’을 주제로 남을 용서하고, 나라를 위해 기

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날 ‘예배의 엎드림’에서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됨을 강조하셨다. 마리아들이 기뻐 외치면서 춤을 추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엎드림’은 나에게 큰 의미와 감동이 있는 단어다. 오래전 양재온누리교회 ‘여성예배자학교’에 참여했었다. 그때 강사님이 이렇게 시키셨다. “큰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라!”, “손뼉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라!” 등을 신나게 따라 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엎드려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난감했다. 옛날 화평홀은 꽤 더럽고 냄새나는 오래된 카펫이 깔려 있었다. 더욱이 그날 나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강사님의 요구에 할 수 없이 바닥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여성이 바닥에 얼굴을 대고, 두 손을 위로 쪽 뻗어 포복하듯이 엎드렸다.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다. 회개의 기름 부으심이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높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마음의 다리를 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보게 하셨다. 그리고 통곡이 시작됐다. 엎드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자이자 피조물인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알게 하셨다. 그곳에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다.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엎드렸다. 많은 마리아가 복도와 강대상 앞에 엎드렸고, 여성 교역자들은 강대상 위에서 완전 포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때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잊을 수 없다.

우리의 엎드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마리아행진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모든 마리아의 엎드림이 삶 속에서 계속되기를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팀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예수사랑부 드러머 교사 모임
시간: 주일 11:30-12:30 한동홀
문의: 김영선(010-3474-763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임
대상: 초1~중1(타렌파스, 타고인 지원 가
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아웃리치 의료진 모임
일시: 8월 9일(금)~13일(화)
장소: 네팔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필리핀 의료선교 약사, 간호사 모임
일시: 7월 4일~8일
장소: 필리핀 보홀섬
문의: 010-4369-1211

브릿지33+ 예배팀 모임
분야: 메인 건반
사례배: 헌의 가능
문의: 김혜련 예배팀장(010-9699-
573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
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
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
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
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
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태초먹거리> 이계호 교수와 함께
성경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알아봅시다.



CGN TV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50분

CGN 유튜브, **풍잉**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계호 교수
약 력

(現)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
(現)태초먹거리학교 학교장
(現)한국인정기구 전문위원
오리건주립대학교 분석화학 박사
도서 '태초먹거리' 집필
MBC QueenN '암과 나' 출연